

# 도태와 환경투자, 양자택일의 한계에 부딪힌 공해기업

**“1만** 5천여 직원들의 생계곤란과 월 4억 달러의 수출차질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금호강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것인가”

대구염색공단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놓고 환경처 관리들이 지난 몇 달동안 골치를 앓아온 질문이다.

결국 환경처는 상공부와 대구시의 견제와 관련업체의 ‘우는소리’에 못이겨 애초의 전면 조업정지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교대 조업정지’라는 어정쩡한 결정을 내려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지난번 폐놀오염사태 때도 그랬다. 상공부 등 경제부처들 등에 업은 굴지의 가전제품업체의 아우성 앞에서 환경처는 조업정지 기간을 단축해 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경제’쪽에 배려를 아끼지 않는 환경당국의 해묵은 버릇을 들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비산염색공단사태는 우리에게 이른바 ‘사양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양’이란 접두어가 붙는 산업은 기계화나 자동화가 뒤떨어졌거나



趙弘燮

〈한겨레신문·생활환경부기자〉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바뀌어 더이상 수요가 없는 부문을 가리켰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큰 사양화의 원인은 바로 공해이다. 피혁·도금 등의 업체들이 도심에서 교외로 쫓겨나다가, 요즘에는 공단을 만들어 집단 입주하려 해도 부지를 못찾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문제는 도금·피혁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 대부분 공해 다량유발 업종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탱하는 내노라하는 주력 기업들이 대부분 공해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라면 막대한 돈을 들여야 엄격한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공해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않던 지난 73년 정부

가 중화학공업화의 기치를 내건 이후 온산·여천·반월·대산공단 등 공해문제로 악명높은 공단들이 들어섰다.

환경처의 통계를 보아도 공해기업이 산업의 주축이라는 역설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력키금성·두산 등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1개 재벌기업의 4백34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흘러 보낸 폐수는 48만t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폐수배출업소 1만3천여 곳에서 흘러보낸 2백30만t의 21%를 차지하는 양이다. 게다가 냉각수를 많이 쓰는 포항제철과 한전의 화력발전소들을 빼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아황산가스과 산업폐기물 배출량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나라 61개 재벌기업들의 공해배출 우선순위를 아황산가스·폐수·산업폐기물별로 매겨 보도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일부 동료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룹안에 기업이 많다보면 배출량도 당연히 많아질 것 아닌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룹별 순위까지 매겨 공해주범으로 몰아부치는 건 지나치지 않은가.” 대충 이

런 논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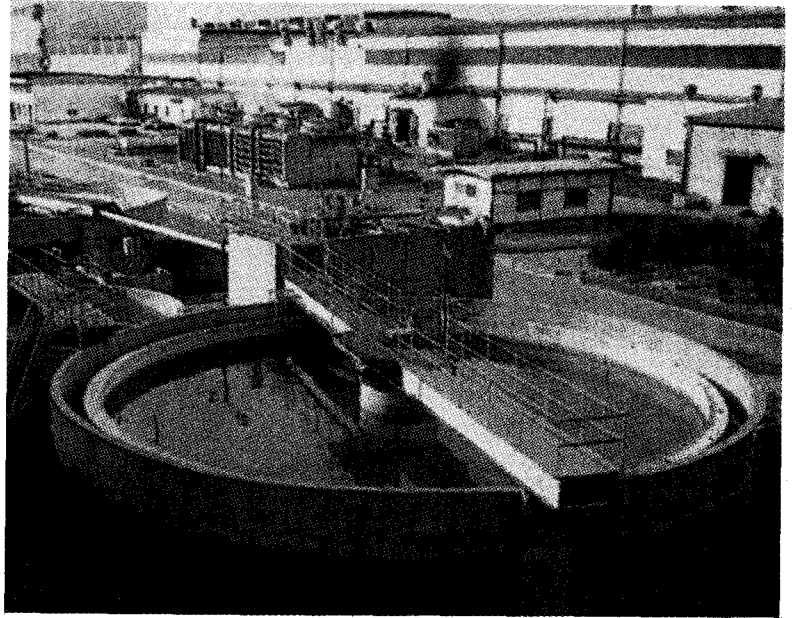
제철소·조선소·석유화학 공장 등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살게' 만든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두산전자나 대구염색공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 산업 때문에 오늘날 환경공해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은 법을 어긴 불법방류가 아니고서도 우리의 하천과 공기를 '합법적으로' 망쳐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둘러보면 우리나라 보다 산업생산력이 훨씬 높은데도 환경공해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공해가 극심한 비철금속 등의 업종이 도태되고 남아있던 공해산업도 철저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대구 비산염색공단은 대표적인 공해산업이자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양산업이 지금껏 버티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관리 불철저와 공단쪽의 두둑한 배짱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비산염색공단은 지난 1980년에 외자 약 30억원을 들여 하루 3만t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했다. 그 후 염색업의 호황으로 폐수량이 급증해, 환경청은 폐수처리 용량부족을 들어 폐수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84년 공단에 보냈다.

그러나 공단은 5년이 지난 89



**이번에 문제가 된 대구 비산염색공단은 대표적인 공해산업이자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양산업이 지금껏 버티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관리 불철저와 공단쪽의 두둑한 배짱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년에 처리용량을 7만t으로 늘려 놓은 것에 만족하고, 그나마 넘치는 폐수는 하루 2~3만t씩 처리하지 않은채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냈음이 지난 4월 들통났다.

환경당국은 그 동안 무려 16

번이나 폐수의 기준초과를 적발해 개선 명령과 고발·조업정지 처분을 되풀이 했지만 악성폐수의 방류를 막는데는 실패했다.

또 공단쪽이 그동안 벌금조로 문 배출부과금 만도 78억여 원, 폐수배출시설에 들인 돈은 2백 62억원에 이른다.

3백억원이 넘는 거금을 들고도 공해기업으로 지탄받는다면 이미 그 업종은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적은 비용으로 정부와 국민이 만족하는 처리실적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염색공단 사태는 공해업종이 더이상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재벌들도 공해배출 순위에서 자신이 몇 번째 순위에 올랐는지 신경써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